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 | | | | |
|-------|------------------|--|-------------|---|
| 배 포 일 | 2022. 11. 10.(목) |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 매수 : 2 매 | |
| 담당 | 분권연구실 | 집필자 | 전지성 연구위원 | T. 033-250-1334 E. hasejjs@rig.re.kr |

고향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 하자 - 강원연구원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전략 관련 ‘정책특토’ 발간 -

-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정책특토 제8호 “고향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 하자” 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의 보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자체적 제도 정비와 사전 준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72%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약 49%였으며, 기부금의 사용 용도로는 건강·의료·복지 사업(14.7%) > 환경사업(12.1%) > 지역산업 진흥 사업(7.8%) 순으로 분석되었다. 기부에 따른 희망답례품으로는 지역상품권(15.4%) > 지역 농산물(13.1%) > 지역 쌀(5.1%) 순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의 준비로는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어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홍보, 관리운영비의 확보가 요구되며, 지자체별 전체 사업을 재정리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한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선정-수행-관리까지 일원화된 통합 추진체계의 마련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도시재생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제고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 전지성 연구위원은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전 국민의 고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rig.re.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정책톡톡 제8호_고향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 하자_전지성